

3 동안 인생에 확신이 없어 너무 고생하고 상처투성이로 살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고, 25의 응답으로 축복하셨는지를 나누었다. 야곱은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가장 우리 모습에 가까운 인생의 모델이다. 우리도 너무 많은 상처, 인본주의, 거기서 오는 실패,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세 단계를 거치며 야곱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고, 세상 살릴 자로 세우셨다.

첫째는 창28:13-15이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주시고, 그 언약을 각인시키셨다.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길에 찾아오셔서 야곱의 정체성을 심어주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베엘의 사건이었다.

둘째는 창32:22-32이다. 압복강에서 깊은 기도를 체험하게 하면서 언약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신 것이다.

여기서 야곱의 내면에 있던 깊은 상처를 치유하셨다. 세가지 내면 치유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마음치유).

더 이상 인본주의 쓸 생각도 사라졌다(생각치유). 오랫동안 어그러진 형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관계치유).

셋째가 창35:1-5이다. 야곱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회복되는 결론적인 응답을 받는다.

여기에 중요하게 생각해 할 것이 있다. 지금까지가 야곱 개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이었다면 창35장은 그의 전 가족, 가문, 후대까지 치유한 사건이다. 야곱에게 베엘로 올라가라고 하면서 그의 전 가족을 이끌고 올라가 제단을 쌓게 한 것이다. 올라가기 전에 전 가족의 우상을 모아서 버렸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했다.

내 가정과 가문과 후대 치유의 핵이다. 가족 각자가 가진 우상이 있다(형상, 종교, 돈, 육신, 성공 중심의 삶).

가정에 문제와 갈등이 있는가? 가족 전체가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회로 붙잡고 기도하라.

1. 이후에 가정, 가문, 후대 전체에 주신 응답 25가 있었다(창35:10-15). 세가지 응답을 약속하셨다.

1)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고 하셨다. 가문에 대한 언약이다.

이 약속대로 상처투성이요 갈등으로 끝날 수 있는 열두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열두 지파가 나왔다.

우리의 가문이 복음의 가문이 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가문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잡으라.

2)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셨다. 씨밋의 언약이다.

실제로 이 언약대로 요셉 같은 인물도 나왔고, 전무후무하게 쓰신 다윗 왕과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도 오셨다.

부족한 우리 가문이 복음 가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문이 되고, 시대 살릴 씨밋들이 나오는 언약을 잡으라.

3)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하셨다. 전도자, 정복자로 쓰임을 받는 언약이다.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3시대를 준비하라는 것이다.

그 3시대를 살릴 사명자들이 우리 가정, 가문, 교회, 전 세계 램넛트 전체에서 나오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라.

2. 이 언약 속에서 시작한 12지파와 요셉에 관한 기록이 본문이다.

한 시대 요셉 같은 인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열심히 공부시켜서 나온 것이 아니다.

1)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약속을 주시고(언약),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이다(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정확히 언약을 깨닫고 붙잡아야 한다. 본문에 요셉에게 꿈을 통해 확인시켜 주셨다.

2)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확인할 수 있었던 나이가 17세이다(2절).

그 말은 17세 이전에 그 부모가 요셉에게 언약을 각인시켜 주는 일을 끝냈다는 것이다(사명식).

그래서 태영아 사역에서 중고등부 사역까지의 램넛트 사역이 중요한 것이다. 18세 이전에 끝내라는 것이다.

미국은 18세 이상이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으로 가든지, 대학으로 간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독립하는 나이이다. 이제는 현장에 선교사로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파송식)

3)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준비시키셔서 마침내 세상으로 보낸 것이다.

① 형제들과의 갈등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였다.

문제가 올 때 우리는 그것을 고통스런 문제로만 본다. 그것이 진짜 문제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보는 눈을 “영안”이라고 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도전할 때 “영성”이라고 한다.

② 세상에 보내어 세상을 보게 하고, 거기서 고통 당하는 현장을 보게 하신다(세상 보는 눈).

세상 살릴 전도자로 쓰이기 위해서이다(제자). 고통 당하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도 보게 하시는 것이다.

거기서 전문성도 배우게 하셨다(유일성). 노예로 살면서 경제를 배웠고, 감옥에 가서는 정치를 배운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증거를 얻게 하시는 것이다(증인). 어디를 가도 오직 하나님을 누리니 모든 것이 증거가 되었다.

불신자도 중요한 사람은 자녀들을 18세 이전에 끝내고, 독립시키고, 스스로 서게 만든다.

3. 이제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도전할 내용이다.

1) 언약을 붙잡으라. 특히 가족 복음화의 언약을 잡으라. 성경이 말하는 가족 복음화가 어떤 의미인가?

① 불신자 가족을 향해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16:31)의 언약 잡으라

② 믿음의 가족을 향해서는 내 가정과 가문 속에 영적 흐름, 보좌의 흐름이 흐르도록 기도하라(시103:20-22).

그것이 가정예배이다. 특히 남편과 아버지는 가정 예배를 이끌 수 있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다.

③ 완전히 미션홀이 될 정도로 헌신하는 가족들이 되도록 기도하라(행16:15).

내 집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전도자의 집이 되고, 내 집이 램넛트와 제자가 일어나는 RUTC가 되는 것이다.

2) 3시대를 준비하는 성령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라.

야곱 이상으로 상처투성이인 우리들일지도 모른다. 그 야곱을 세워 이 축복을 이루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24시로 깊이 호흡하면서 3, 9, 3의 기도를 계속해보라.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플랫폼, 파수 망대, 237을 살리는 파수 망대가 되게 할 것이다.

3) 다시 어떤 문제와 갈등이 와도 낙심, 절망, 불신앙에 빠져 속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진짜 믿음을 회복하라.

요셉이 꿈 얘기를 할 때 형들은 시기했지만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고 했다. 이것이 믿음이다(창45:28).

내 믿음이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때 흑암이 꺾인다(막16:17-18, 요일5:4)

결론-나를 살리고, 가족과 가문과 후대와 교회를 살리는 언약을 잡으라. 그 증거를 가지고 237을 살리는 것이다.

이들이 70인 제자들이다. 이 증거들이 반드시 우리의 가족과 가문과 후대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한다.